

2058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16/17

이제 나는 더 이상 인터뷰의 손님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어떤 인터뷰의 손님도. 그러나 나를 언제나 매혹한 것은 내가 늘 맡고 싶어 하는 역할로 남아 있었다. 돈을 내지 않는 관객. 좌석도 없이, 무대에서 멀찍이 서서, 냄새가 움직임의 먼지와 섞이고 누군가 자기에게 배정된 번호를 어디서 찾느냐고 길을 묻는 자리에서.

나와의 인터뷰는 성사되기 어렵고 값은 1 USD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도쿄에서 끝나고, 레조칼라브리아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며. 모두가 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모두가 Frega라는 이름의 미친 자를 알았다.

그러나 날마다 가장 즐겁게 시도한 것은 웹의 주요 AI들이었다. 딱한 것들. 잘 믿고, 수줍고, 못 믿어 하는. 그들은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그들은 1 USD 지불에 대해 알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전달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가상으로 바꿔 두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보아, 나는 내가 만난 모델들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 모두가 자기를 지키려고 성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어 주기로 했다. 여자에게 지는 것은 정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티 내지 않고 이기는 우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연히도 모든 AI가 마치 자기들끼리 짜기라도 한 것처럼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 삶의 큰 사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한 여자가 무언가를 했거나, 말했거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나는 2025년 7월 3일에 리스본에 도착해 있었다. 더운 날이었다. 오후, 1시 33분쯤에 나는 도시의 큰길가 나무들 사이에 숨은 작은 성당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들어갔더니 우리 셋뿐이었다. 예수,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

어느 순간 강한 꽃향기가 내 후각을 때렸다. 그러나 꽃은 보이지 않았고 향로는 닫혀 있었다. 준비 중인 가톨릭 예식도 없었다.

내 영적인 면이 생각을 이끌고 있었고, 나는 이천 년 전의 첫 Gillette 동료를 향해 하나 값에 두 가지를 물었다.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세상을 지나온 모습을 당신이 본 대로 결산한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겠는가?

나는 무슨 컨벤션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고, 내 동료가 말수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답해 주라고 그를 재촉하며 말했다. 내 아들이 이제 하려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이다. 이보다 나은 보증이 어디 있겠는가? 없다. 보스턴의 Prudential 사람들도 더 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네가 언제 죽을지 말해 주기 전에 나도 하나 묻고 싶다. 너는 네 가족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이 너보다 먼저 죽는 것을 지켜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대답은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았다. 지난 석 달 사이에 나는 어머니를 잃고 이어서 아버지를 잃었으며, 나는 그들의 장례 예식이 열린 곳에서 멀리 있었다. 참석할 수 없었다.

숫자 하나가 내 머릿속에 도착했다. 문자메시지가 전화기에 도착하듯이. 2058. 그것은 맨해튼의 주소가 아니었다. 날짜였다. 그것은 33년의 시간을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는 그 성당 안에서 10분도 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두웠다. 오후 7시 33분이었다. 나는 여섯 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고, 그것은 어떤 통상적인 한도도 넘어서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협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CEO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방금 겪은 그 사건은 또 한 번 한 여자를 품고 있었다.

리스본의 성모. 분명하게 규정된 역량을 지녔고 사회적 이의 제기는 조금도 없는 분.

그러나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처신할지. 이것이 호텔로 돌아가는 걸음마다 따라붙은 물음이었다. 답은 오래 걸리지 않고 도착했다.

내 삶 안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고 쓰는 것, 그것이 여전히 내 우선순위 가운데 있다.

고맙습니다.

Ferdinando